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10, 새번역)

1주 “풍성한 삶으로 들어서는 첫 걸음”

1강. 세가지 문, 그리고 걸림돌들

들어가며

- 여행을 시작하며 : 좋은 가이드를 만남으로써 누리게 되는 유익

본론

- 기독교에 들어오는 세가지 문
 - 생활 방식 Life Style
 - 위기의 경험/체험 Crisis
 -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 Seeking
- 진리로 가는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 다양한 장애물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 정직한 질문이 필요한 이유

* '길을찾는이들'(www.imseeker.org)의 FAQ

- 1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 2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땅의 많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 3 선하신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 4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 5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까?
- 6 과학과 신앙은 양립할 수 있습니까?
- 7 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무시합니까?
- 8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 9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10 왜 한국사람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합니까?
- 11 종교가 다른 가족들과 불화하기 싫습니다.
- 12 기독교인이 되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 13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 14 왜 기독교인 가운데 위선자가 많습니까?
- 15 신앙이란 결국 약자들의 위안이나 의지의 대상일 뿐 아닌가요?
- 16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 17 교회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 18 먼저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 19 교회는 왜 그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 20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 21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결론

- 당신은 어떤 문으로 들어왔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가?
-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변을 가져온다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Francis A. Schaeffer)

나눔질문

1. 당신은 '기독교에 들어오는 세가지 문' 중 어느 곳을 통해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은 어떤 과정 중에 있으십니까?
2.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2강. 유신론과 무신론, 소통하시는 하나님

들어가며

- 기독교에 대하여 말하기 위한 전제점들

본론

-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유신론과 무신론
 -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
- 기독교의 가르침 :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인간과 소통하셨는가?
 - 신(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 가장 핵심적인 소통 방법 : 문자(Text)로 이루어진 “성경”

결론

- 가장 중요한 일 :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기

나눔질문

1.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또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 신은 소통하는 신인가?
2. 당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한 '성경'이라는 미디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강의를 듣고 난 지금, 혹시 그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3. 다음에 나열된 성경의 세 부분을 읽고, 이 본문들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성경은 예수가 누구라고 전하고 있는가? 그는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읽어보기 : 요한복음 2장 1-11절 / 3장 1-21절 / 4장 1-42절

요한복음 2장 1-11절

1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2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하였다. 4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6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7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주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9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10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11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요한복음 3장 1-21절

1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원이었다. 2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7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9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10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1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

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17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20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2절

1 요한보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시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3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4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6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산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12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16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시니 17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18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19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우리 조상은 이 산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우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3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니 26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하고 말씀하셨다.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28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0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하고 권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33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하고 서로 말하였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35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36 거두는 이는 샷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들인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37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말이 옳다. 38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39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 42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 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